

#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13, 마태복음 14-16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3회, 마태복음 14-16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시성 측면에서 이것은 새벽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동방에서 오셨겠지만 아마도 그분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그들이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 위를 밟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사용된 표현은 특히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그가 지나가시던 곳이었습니다. 욕기 9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바다를 밟으셨다고 나옵니다. 불과 몇 구절 뒤인 욕기 9장 11절에서는 야훼가 지나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이 사람, 마가복음은 이미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신성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그 묘사를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14:27, 또한 마가복음 6:5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것은 종종 번역됩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내 안의 에고, 그것은 나입니다. 또한 나는 존재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물론 구약에서 신성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이의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신성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쎄, 제자들이 그를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정말로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 말은, 기술적으로 이미 유대인들은 의인은 선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있고 악인은 고통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부활, 적어도 의인의 부활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결국, 다니엘 12:2에서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마태에게는 있지만 마가에게는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베드로는 표현, 곧 믿음의 행위를 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적을 행할 수 없으며 베드로는 이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라앉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할 것을 올바르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피터와 달리 나는 실제로 배에서 자주 내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식으로 나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교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선교의 맥락에서 그와 그의 사역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매우 급류의 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에는 물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건너도록 인도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들어섰습니다. 물은 무릎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발바닥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강바닥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반대편으로 가서 설교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방금 물 표면을 가로질러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식으로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아, 안돼, 나중에까지 그걸 몰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건너야 한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모두 남자들이라 손을 꼭 잡고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물을 건널 때 그것은 그들의 가슴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과 팔짱을 끼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그 지역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서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물이 잔잔해지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걸어갔고 그것이 그녀의 발목까지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닥에 닿고 있다고 생각했고, 물이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건너갔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당신은 방금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초자연적인 도움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5장, 성경은 전통을 이긴다. 전통은 때로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경전적 아이디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통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의 축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손 씻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관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광범위한 유대인 관습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위생 목적으로는 좋지만 의식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의식 루틴의 일부인 다른 종류의 씻는 의식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손 씻기를 포함하여 전통에 대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의존하는 랍비 자료를 통해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나요? 예수께서는 반격을 가하셨습니다. 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원칙을 무시합니까? 아, 이것은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전통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강조합니다. 글썄, 기억하세요. 그들은 그것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요세푸스와 일부 랍비들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랍비가 그의 어머니를 너무나 공경하고 싶어해서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이것은 땅에서 떨어져 있는 침대였고, 그는 땅바닥에 누워 어머니를 자기 등으로 밟게 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침대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돈을 성소에 바치는 종교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나쁜 일임을 인식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적어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는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망이 있고 일부 국가에는 그런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이들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것에 대해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글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식량을 얻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십일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말은, 성경적 청지기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청지기 직분이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중앙의 몇몇 중앙 감독자들로부터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일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존중하고 주변의 실제 필요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실제로 매우 경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말씀하신다(6절).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물려주었다.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부인하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그들이 성경보다 전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교훈은 사람의 계명이라.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우리 교회의 전통을 성경으로 읽거나 우리 문화를 위해 성경을 무시합니다. 실제로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종종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때에도 자신들의 전통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합니다.

오늘날 문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에서 특정 종류의 성행위가 용인된다고 하면 교회는 이를 따릅니다. 또한 문화가 말하는 것에 대해 단지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괜찮다고 말하면 우리는 문화가 말하는 것에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 반대이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경험을 높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든 우리가 듣는 어떤 설교자의 경험이든 성경보다 그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하는 대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경험 속에서 성경을 실천하는 대신, 우리는 결국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경험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다시 성경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15:12). 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쾌하다는 단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스캔들리조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났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강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동맹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자는 뽑힐 것이라고 하십니다(13절). 이것이 바로 성경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을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먼 인도자로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각 장애인에게는 종종 인간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적어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시각 장애인의 길 안내를 도와주는 안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각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줄 인간 안내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식자를 잡기 위한 열린 구멍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장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특히 열린 구멍이는 포식자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니 둘 다 구멍이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랍비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외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개인적으로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부사항보다 토라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마크는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설명을 덧붙이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코셔(Kosher)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먹는 방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Matthew는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남아 있습니다.

토라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토라의 세부 사항 중 일부는 이스라엘 에레츠에서만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만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토라의 세부 사항 중 일부는 문자 그대로 기록된 방식으로만 농업 사회에서만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특정 기간에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초문화적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2장의 원칙에 따르면 지붕 주위에 난간이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 지붕 주위에 울타리를 쳐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보통 그들은 "아뇨, 우리 집 지붕에는 울타리가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통 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끝났습니다. 나는 떠난다.

아니요. 하지만 내가 돌아오면 그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물론 사람들이 종종 옥상에서 이웃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평평한 지붕을 갖고 있었고 지붕 위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지붕 주위에 이 울타리를 쌓으라 너희가 유혈죄를 당하지 않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군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놀아주기도 합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재산은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해야 합니다. 이웃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문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일부 문화권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50%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부 자동차에 안전벨트조차 없다는 이유로 웃는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웃의 안전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안전 프로토콜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토라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는 악덕 목록을 제공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문학적, 수사적 형식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hilo에는 100개 이상의 악덕이 나열된 악덕 목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 나열한 대부분의 악덕은 십계명에 나오는 인간의 말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짜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일어날 일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이 의식적으로 불순하다고 간주할 사람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깨끗한가에 대한 문제는 15~20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녀는 그리스어로 시로페니키아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녀는 복음서 시작 부분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과 라합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개가 그 문화에서 좋은 보완재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때때로 개를 애완동물로 키웠던 그리스인들도 개를 심각한 모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녀를 개라고 부르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그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개는 그런 짓 안 해 그러나 그는 그녀를 개와 비교합니다.

그는 그녀의 믿음에 장애물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믿음으로 인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문화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를 애완동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서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어치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개에 비유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는 1등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큰 것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것뿐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스러기뿐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그녀는 예수님께서서 만드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 말은, 때로는 아니오가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기 위해 장애물을 두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글쎄,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가서 수행원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은 그것을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 대해 사용하여 그의 종들에게 요셉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글쎄, 그녀는 대답을 거부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거룩한 후츠파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수치스러운 믿음을 가진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군중은 눈먼 바르티매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사적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계속 연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믿음은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백부장이 8장에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것처럼 그녀도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합니다. 그 전에는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4,000명을 먹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에게 아이들의 빵을 주었지만 아이들이 먹은 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문자 그대로의 빵도요. 예수님께서서 4000명을 먹이신 뒤에 일곱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마태오, 왜 전체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왜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나요? 당신은 여자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매튜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계수한 사람은 마태일 수도 있지만, 원래 계수한 사람은 그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튜가 얻을 수 있었던 수치입니다.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늘에 있는 표징처럼 하늘의 표징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별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부터라는 말 역시 유대인이 말하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원고에는 있고 어떤 원고에는 없어 사람들이 하늘을 기준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보면 날씨는 알 수 있어도 때를 알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비는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유대, 갈릴리에 산다면 서쪽에서 오는 종류의 비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쪽 사막 등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불어오겠죠. 따라서 그들이 기후와 지형에 대해 알고 있는 특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신호를 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어진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기대는 종말이 오기 전의 악한 세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쎄, 이것은 확실히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16:6). 현자들은 때때로 수수께끼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는 문자 그대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문자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6:7. 그래서 예수님은 16:9이나 11절에서 자신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내 말은, 음식의 증식을 의미합니다. 빵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구니는 몇 개 남았나요? 열둘.

열두 개의 큰 바구니. 빵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일곱 개의 작은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나는 문자 그대로의 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빵을 늘릴 수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강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헤롯당은 그 당시 그에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작가들은 종종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을 고백하도록 마련하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와 마태를 포함한 다양한 선지자들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글썄, 왜 이런 곳에 있지? 이곳은 주술과 이교 숭배, 특히 판(Pan) 신에 대한 숭배로 유명한 이교 도시였습니다. 물론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글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것들을 더 간결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기 때문에 먼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비교하기 위해 여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글썄, 우리는 이미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군중 통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기도 너무 빨리 십자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Mark에서 지리적 예외를 확인하세요.

예수께서는 이전에 이방인 지역에 있던 마귀 들렸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글썄, 이방인들은 오해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마술사로 오해했지만, 메시아 개념은 오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마술사가 아니라는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대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변형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런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그분의 정체성을 실제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빛 없이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의 수준은 다양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12절.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소경이었습니다.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그건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략 다섯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아직도 눈이 먼가요? 아직도 안보이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그들은 바리새인들만큼 눈먼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대자들만큼 소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반쯤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 번째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접촉으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8장 22절과 25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신 직후에 두 번의 손길로 소경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만지시자 그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글썄,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걸터다니는 나무처럼 보이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손을 대시자 그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도 두 번째 접촉이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세기 이후의 전통이었지만, 예수 당시에는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시편 17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승리의 전사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반대합니다. 오, 주님, 제가 방금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보다 인간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33. 당신은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메시아를 따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9절을 내가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밀 정체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사명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위대한 선생님이거나 선지자, 심지어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믿어야 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는다의 의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이 고통을 반대하는 신학을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8장 34절과 8장 35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르는 사람은 나를 십자가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사람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 예수께서는 점점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치료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내용은 아주 약간만 다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음, 마가는 그들의 치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내용이지만 그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 부분의 대부분은 세례 요한의 처형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는 순교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은 바디매오와 아이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나는 섬기러 왔노라, 죽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 추종자들에게 큰 환난을 경고하신 후 14장과 15장에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추종자들은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집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세상의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글쎄요, 마태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제들을 함께 다루고 싶었지만 Matthew는 또한 몇 가지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Matthew가 가지고 있는 추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1616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8절에서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위 같은 베드로는 바위에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즉 23절에 보면 그는 좋은 반석에서 나쁜 반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매우 숙련된 가톨릭 학자인 존 P. 마이어(John P. Meyer)가 마태복음에 관한 연구에서 이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부 해석자들은 페트라, 페트라, 페트라, 록을 대조하면서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어 시대, 즉 코이네 그리스어는 실제로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고대 그리스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람어에서는 그 뒤에 있는 한 단어인 케파스(kephas) 또는 그리스어로 음역된 케파(kephas)는 신약성서에서 베드로를 가리키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 말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여 인용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즉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유일한 기초이시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의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형상에서 그리스도는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궁극적인 기초이시지만 그분에 대한 선포는 또한 교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베드로의 역할은 그가 반석이요, 기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교회는 그의 고백자로서의 역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은 바위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비록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교황이나 교황권에 적용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는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문맥에서는 실제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사람으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건축되고 있는 교회,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이 언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글썸, 이것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에 관해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 에클레시아(ekklesia)는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용어로서 공공 집회를 지칭합니다. 에클레시아(Ekklesia)는 '불러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크(ek)는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클레시아(klesia)는 부르심을 뜻한다.

그러나 말이란 단지 말의 조각들을 모아 놓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어는 어원이 의미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불러? 영어 단어 nice는 무지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욕했습니다. 어쨌든 심각하지는 않지만 단어의 어원이 아니라 사용법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공개 집회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서의 헬라어 번역에서는 코홀(qohol), 모임, 광야의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가 몇 가지 다른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는 회당(synagogue)인데, 여기서 회당(synagogue)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에클레시아(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용어였습니다.

글쎄요, 예수께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해사본은 남은 공동체에 대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결국, 그는 12를 선택했습니다. 음, 매우 회의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해 두루마리에는 12자가 사용됩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갱신 운동의 지도자에게는 이치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아주 초기 전통에서 아주 일찍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유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확하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아주 초기의 전통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에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르침을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추종자 공동체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12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언어로 이 다가오는 공동체에 대해 말하면서, 다시 마태와 누가가 공유한 자료에서 그는 12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가 떨어져 나감에 따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은 매우 초기의 전통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 말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를 세우는 언어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주 그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었습니다(예레미야 24장 6절, 예레미야 31장 28절 등).

예수님은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데스의 문은 그리스어로 표현되고, 때로는 하데스의 문은 스올의 문에 대한 구약의 히브리어 표현을 번역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의 영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이었습니다.

두 표현 모두 죽음의 영역을 가리킨다. 하데스의 문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거나, 죽은 자들이 있는 저승을 자주 말하며, 하데스와 하데스의 왕국 등을 가리킨다. 여기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죽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점은 순교가 교회를 막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여도 교회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터툴리안은 2세기 후반에 쓴 글에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의 열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데스의 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왕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열쇠가 매우 컸습니다.

지금은 여기 주머니에 작은 열쇠가 몇 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열쇠가 아주 컸어요. 그리고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쇠, 즉 왕국의 열쇠를 지닌 사람은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이사야 22장은 다윗 집의 열쇠를 갖게 될 그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열쇠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예수에게 십자가 없는 왕국을 제안한 후 4장과 10절에서 그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이제 예수의 뛰어난 제자인 베드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는 너를 통해 말하는 사탄이다.

그리고 27절 40절과 4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게 하십시오. 즉,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왕국이라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23절에 보면, 그것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생명이나 영혼을 정말로 영원히 구원하고 싶다면, 이생에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고 그는 25절과 26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그것을 인식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

바룩2서라는 유대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종종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잠시 지속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해한 것 중 하나였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모든 시간을 플라톤을 읽는 데 보냈는데, 그것은 신약성서에 가장 유용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플라톤에게서 얻은 한 가지 좋은 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매 순간을 영원에 비추어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현명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언젠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미적분학 시험에 실패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수학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1년과 영원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나요? 분명히, 영원합니다. 당신은 친구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가 왔고 그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 은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돕고 싶습니다.

회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상실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금은 살아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죠.

나는 이제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자가 와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리라 2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28절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하려고 미리 맛보라고 하십니다. 음,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들은 변형을 통해 다가올 그분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3회, 마태복음 14-16장입니다.